

한-캐나다 FTA의 의미와 영향¹⁾

김영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ygkim@kiep.go.kr)



지난 12월 2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양국합의에 의해 내년 1월 1일 발효가 예상되는 상황인 바, 캐나다와의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캐나다는 우리의 제23위 교역파트너이자, 주요 자원개발 투자대상국이다. 한-캐나다 FTA는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이며, 특히 우리는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 일본, 중국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 성장은 약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13억 불 증가하고, 이로 인해 약 1,046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은 주로 승용차, 자동차 부품, 타이어, 냉장고 등에서 수입은 비철금속, 화학제품, 가축육류 등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통서비스, 문화서비스, 환경서비스 등에서 서비스 수출이 기대되고, ISD조항이 포함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도 예상된다. 캐나다와의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 FTA의 직접수혜자인 캐나다측 수입업자를 상대로 한 마케팅 강화, ▽ 품목다변화를 위한 신규수출품목 및 캐나다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중소·중견기업 발굴, ▽ 수입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심, ▽ 에너지 자원 개발과 연관된 플랜트, 중장비 등 관련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의 진출 확대 검토, ▽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연계한 캐나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전략 수립 등 ▽ 고품질과 한류를 키워드로 한 맞춤형 공략 준비,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기회로의 활용전략 수립 등 노력이 필요하다.

1. 배경

-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었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양국이 협의한 결과 2015년 1월 1일에 한-캐나다 FTA 발효가 예정되었음.²⁾
 - 캐나다와의 FTA는 2005년 7월 협상이 개시된 이래 총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4년 3월 타결되었고 9월 22일에 정식 서명되었음.
 - 한-캐나다 FTA 발효를 위한 우리측 국내 절차는 완료되었으며, 캐나다측 역시 11월 25일 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캐나다 내각이 칙령 승인을 완료함으로써 내년 1월 1일 발효가 확정되었음.³⁾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경제연구원이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

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호주/한캐나다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 2014년 12월 2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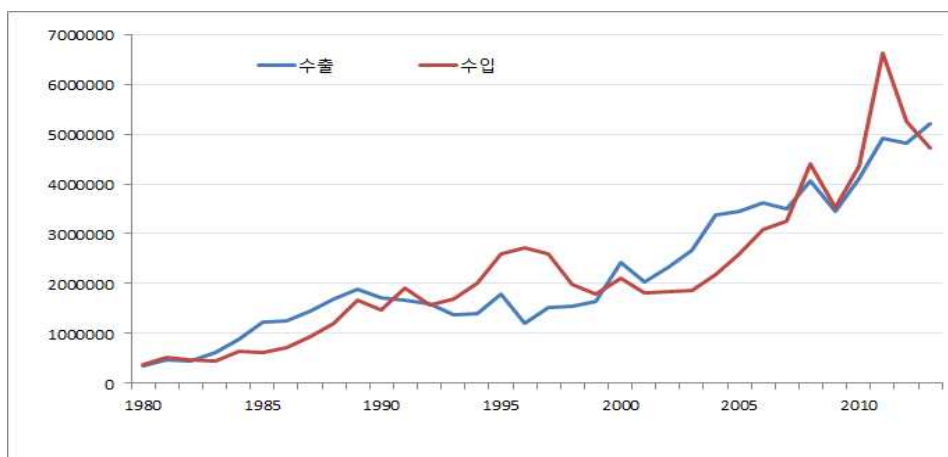
-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과 캐나다간 경제현황 및 한-캐나다 FTA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그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2. 한-캐나다간 경제관계

- 2013년 기준, 캐나다는 우리의 제23위 교역파트너 (수출 25 위, 수입 23위)이며, 양국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1990년에서 2013년간 양국 교역규모는 31억 달러에서 99억 달러로 약 3배 증가하였으며, 수출이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인데 비해 수입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급락과 급등을 반복
 - 2000년 중반이후 對캐나다 교역에서는 계속 적자를 경험하다 2013년 들어 6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으나, 2014년 10월까지의 교역에서는 다시 적자 상황
- 한국의 對캐나다 해외투자가 캐나다로부터의 외국인투자를 금액과 건수 면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
 - 캐나다는 우리의 11번째 투자국이자 6번째 투자대상국이며, 캐나다는 주로 금융·보험과 부동산·임대업에 우리는 주로 투자⁴⁾
 - 캐나다로의 해외투자는 2009년과 2011년에 자원개발 목적으로 급증한 후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당 투자금액이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이슈

<그림 1> 한-캐나다 교역관계

(단위:천달러)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2014)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

- 발효는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할 날로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이뤄지도록 되어 있어 우리는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캐나다와 협의하였음.
- 對캐나다 투자의 87.9%가 광업에 대한 투자일정도로 광업부문 투자가 활발

<그림 2> 한-캐나다 투자관계

(단위:천달러)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2014)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캐나다로의 수출은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에, 수입은 광물에너지 부문 중심의 자원 및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음.
- 對캐나다 수출은 승용차(1위), 자동차부품(3위), 타이어(5위) 등 자동차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자동차 부문은 수출의 47.6%, 승용차는 40%의 비중을 차지
- 對캐나다 수입 상위 10대 품목의 대부분은 유연탄(1위), 펄프(2위),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3위) 등 자원 및 원자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품목들이며, 특히, 유연탄은 전체 수입의 34.0%에 달함.

<표1> 한-캐나다 교역품목 (2014년 1~10월)

(단위: 천 달러, %)

순번	수출				수입			
	MTI	품목명	금액	증감률	MTI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7411	승용차	1,805,394	-3.4	1322	유연탄	1,210,458	-13.9
2	8121	무선전화기	290,146	-47.1	1130	동광	519,956	201.5
3	7420	자동차부품	229,242	14.8	1360	우라늄	270,844	429.2
4	3203	타이어	77,144	-9.5	1120	철광	238,591	434.5
5	6111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	69,781	121.4	2511	펄프	222,126	-10.1
6	8230	냉장고	68,745	17.0	621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49,993	-20.8
7	7211	섬유기계	58,929	-41.5	2330	칼륨비료	135,231	-23.0
8	2140	합성수지	55,707	-5.1	0311	원목	116,002	-7.3
9	6133	냉연강판	54,969	188.4	0136	사료	115,151	291.2
10	8421	변압기	53,769	79.9	7901	기타기계류	95,440	400.4
		총계	4,094,913	-6.3		총계	4,785,272	19.4

자료: 무역협회 (www.kita.net)

3. 한-캐나다 FTA 주요 내용

가. 상품 양허

- 한-캐나다 FTA는 높은 수준의 상품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양국은 교역하고 있는 대다수의 품목에 대해 발효 후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
- 한-캐나다 FTA의 10년내 자유화율은 한국이 품목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이며 캐나다는 각각 97.5%와 98.7% 수준임.⁵⁾
- 즉시철폐 품목은 한국이 9,749(81.9%)개, 캐나다가 6,380(76.4%)개이며, 5년 내 관세철폐 품목은 한국이 10973(92.2%)개, 캐나다가 8140(97.5%)개임.
- 전체 양허수준은 양국이 유사하나, 산업별로 나눠보면 한국은 공산품에서 캐나다는 농수산물에서 양허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캐나다의 경우 10년 내를 제외한 양허유형은 E(양허제외)와 F(11년 철폐)만 존재하나, 한국은 매우 다양한 양허유형을 설정함으로써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표2> 한-캐나다 FTA 상품 양허수준

(단위: 개, 백만 달러, %)

		한국 양허				캐나다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공 산 품	즉시 철폐	9402	93	3904	93.4	5638	81.6	4146	64.1
	5년 내	9993	98.9	4169	99.8	6874	99.5	6381	98.7
	10년 내	10105	100	4182	100	6876	99.6	6381	98.7
	양허제외	1		0		6	0.1		0
	협상제외	0		0		0		0	
	10년 내 이외	1		0		31	0.4	84	1.3
	합계	10106	100	4182	100	6907	100	6465	100
농 산 품	즉시 철폐	347	19.3	300	46.3	742	51.5	42	64.2
	5년 내	980	54.6	474	73	1266	87.9	66	100
	10년 내	1499	83.6	571	88	1266	87.9	65	100
	양허제외	194	10.8	21	3.3	175	12.1		0
	협상제외	16	0.9	1	0.1				
	10년 내 이외	295	16.4	78	12	175	12.1		0
	합계	1794	100	649	100	1441	100	65	100

주: 품목수는 HS 2011년, 수입액은 2009~2011년 수입액 평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4.6.13.) “한·캐나다 FTA 가서명”

5) 자유화율은 일정기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의 비중을 의미함.

-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는 승용차, 자동차 부품, 타이어, 냉장고 등의 對캐나다 시장접근이 개선되었으며, 캐나다는 비철금속, 화학제품, 가축육류 등에서의 혜택이 기대됨.
 - 우리의 제1위 수출품목인 승용차(수출비중 42.8%)에 부과되던 6.1%의 관세를 3년(24개월) 철폐하기로 했으며, 이 외에도 자동차부품(관세율 6%)에 대해 즉시/3년철폐, 타이어(관세율 7%) 5년철폐, 세탁기·냉장고(관세율 8%) 등 가전은 즉시/3년 철폐 등으로 합의
 -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 중 무선전화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중인 상황임.
 - 對캐나다 수입액의 67.6%를 차지하는 유연탄, 펄프, 원목, 동광 등은 이미 무관세 품목이며, 비철금속(가중관세율 0.27%)과 화학제품(가중관세율 1.42%)은 관세율이 낮으나 수입액이 많아 수입확대가 예상됨.
 - 피해가 우려되던 쇠고기(관세율 40%, 72%)는 15년 철폐, 돼지고기(22.5%, 25%)는 5년/13년 철폐하기로 하되,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설정하여 수입급증에 대비하였음.
-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주요 수출품의 생산 공정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위원회방식에 합의함.
 - 완성차는 미국산 부품의 상호 누적 인정을 허용한 부가가치 기준(집적법 35%, 공제법 45%, 순원가법 35%)을, 섬유류는 원사기준인 한·미 FTA보다 완화된 세번변경 및 염색·날염공정 인정 등에 합의
 - 개성공단은 한·미/한·EU FTA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FTA에서 규정한 선행요건은 도입하지 않았음.⁶⁾

나. 서비스·투자

- 서비스, 투자는 한·미FTA와 유사한 수준의 개방에 합의하고, 미래최혜국 대우 조항을 포함하였음.
 - 서비스 투자 유보 목록은 우리가 현재유보 43개, 미래유보 41개, 캐나다는 현재유보 27개, 미래유보 12개이나, 각각 포함범위가 달라 개방도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음.

6) 한·미 FTA에서는 역외가공지역 상품의 원산지 상품 인정 전 충족 기준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의 영향, 환경 및 노동 기준 및 관행 등을 도입한 바 있음

- 우리의 개방도는 한·미 FTA, 한·EU FTA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며, 캐나다는 주로 사업서비스, 에너지, 운송서비스(특히 해상 운송), 전문직서비스 등을 유보목록에 포함 시킴.
- 투자분야에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ISD)를 도입하였고, 캐나다는 NAFTA 발효시점 이후 우리는 한-캐나다 FTA 발효시점 이후 체결한 FTA에서의 최고 대우를 양측에 자동 부여하기로 합의
- 인력이동 분야 중 계약서비스 공급자(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 CSS)에 대해서는 총 22개 대상을 양허했으며, 독립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 IP)에 대해서는 건축가, 엔지니어, 경영 컨설턴트, 의사 등 리스트에 포함하여 양허함.

4.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영향⁷⁾

- 캐나다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자, 우리와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를 갖고 있어 교역 및 투자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임.⁸⁾
 - 캐나다는 안정적인 소비시장이자, 미국과 유사한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어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켓으로서도 의미가 있음.
 - 특히 우리는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 중국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 등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7) 본 절의 내용은 정부부처합동 보도자료(2014.10.2.) “정부, 한캐나다 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8) 캐나다는 2013년 기준 GDP가 1.8조 달러, 1인당 GDP는 5.2만 달러에 이르는 선진시장임.

<표3> 한국과 캐나다의 FTA 현황

한국			캐나다		
구 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구 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발효 (9건, 48개국)	칠레	발효(2004.4.1)	발효	미국	발효 (1989.1.1)
	싱가포르	발효(2006.3.2)		NAFTA	발효 (1994.1.1)
	EFTA	발효(2010.6.9.1)		이스라엘	발효 (1997.1.1)
	ASEAN	발효(2007.6.1)		칠레	발효 (1997.7.5)
	인도	발효(2010.1.1)		코스타리카	발효 (2002.11.1)
	EU(28개국)	발효(2011.7.1)		EFTA	발효 (2009.7.1)
	페루	발효(2011.8.1)		페루	발효 (2009.8.1)
	미국	발효(2012.3.15)		콜롬비아	발효 (2011.8.15)
	터키(상품)	발효(2013.5.1)		요르단	발효 (2012.10.1)
타결 (6건, 6개국)	콜롬비아	서명(2013.2.21)	타결/서명	파나마	발효 (2013.4.1)
	호주	국회통과(2014.12.2)		온두라스	발효 (2014.10.1)
	캐나다	국회통과(2014.12.2)		EU	타결 (2014.8.5)
	중국	타결(2014.11)		한국	서명 (2014.9.22.)
	뉴질랜드	타결(2014.11)		카리브공동체	
	터키(서비스, 투자)	가서명(2014.9)		중미4개국	
진행 (5건, 12개국)	인도네시아	7차협상(2014.2)	진행	도미니카	
	베트남	8차협상(2014.11)		인도	
	한중일(3자)	6차협상(2014.11)		이스라엘 추가자유화	
	RCEP	6차협상(2014.12)		일본	코스타리카 추가자유화
	아세안추가자유화			모로코	
여건 조성 (3건, 8개국)	멕시코	2차협상(2008.6)		싱가포르	
	GCC	3차협상(2009.7)		TPP	
	일본	3차과장급협의(12.6)		우크라이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www.fta.go.kr)와 Foreign Affari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www.international.gc.ca)

-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10년에 걸쳐 우리 경제성장은 약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13억 불 추가 증가하고, 약 1,046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됨.^{9) 10)}
- － 한·미 FTA나 한·EU FTA 분석에 사용되었던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성장 및 소비자 후생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질 GDP는 발효 후 5년에 약 0.02%, 10년에 걸쳐서는 약 0.04% 추가 증가하고¹¹⁾ 소비자 후생은 각각 약 3.73억불과 약 5.13억 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¹²⁾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2014)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

10) 본 결과는 상품에 부과된 관세철폐로 인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비관세장벽 완화나 서비스, 투자 자유화로 인한 효과를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임. 다만 비관세장벽 완화 등으로 인한 효과분석에는 자의적인 가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추정결과를 제시함.

11) 한-캐나다 FTA가 2015년 발효되어 협정문의 양허스케줄에 따라 관세가 감축되는 경우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며, 발효 후 5년과 10년의 효과는 각 시점까지의 관세감축률에 의한 효과임.

12) 소비자 후생은 동등변화(Equivalent Variation, EV)로 측정했으며,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기 전 가계가 소비하던 상품묶음을 캐나다와의 FTA 발효 이후 동일하게 소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캐나다 FTA 발효로 인한 고용효과 분석결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농수산업에서는 44명의 고용감소가 우려되나, 제조업에서는 143명, 서비스업에서는 947명의 고용증가가 기대되어 전체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약 1,046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분야에서는 발효 후 15년동안 연평균 약 1.1억 달러의 흑자가 기대되며,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 생산도 연평균 약 4.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¹³⁾
 - 수출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생활용품 등에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수입은 원자재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여타 산업에 대한 유발효과가 큰 품목들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철강 및 전기전자 산업 등에서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농축산업에서는 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과 생산감소가 우려됨.
 -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축산물 수입은 발효 후 15년 평균 약 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생산감소도 15년 누적으로 약 4,806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대체효과를 포함한 캐나다산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생산 감소의 약 85%가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축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수산업 분야에서는 한-캐나다 FTA 발효로 연평균 약 0.1억 달러의 수입증가와 약 1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됨.
 - 수입은 바닷가재·먹장어·홍어·정어리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수출은 어분 등 기타 수산품에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산 수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생산감소는 연평균 약 10억원, 15년 누적으로는 약 149억 원이나 전체 수산업 생산규모에 비하면 0.01% 수준으로 미미함.
- 캐나다는 지식집약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며, 한-캐나다 FTA로 유통서비스, 문화서비스, 환경서비스 등에서 서비스 수출이 기대됨.
 - 캐나다의 서비스 산업은 전체 GDP의 70%이상을 차지하며, 노동인구의 3/4인 약 천4백만명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등 캐나다 경제의 근간을 구성
 - 캐나다는 유통서비스 모든 분야에 대해 개방할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유통업에 대한 진출 및 투자 확대 가능성이 높은 편이나, 캐나다 유통업체의 대형화로 인한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어 우리 중소기업들은 상품 다변화, 한류 접목 상품취급 등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2014)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

- 문화서비스 부문에서는 최근 공동제작한 애니메이션(넛잡)의 흥행 성공으로 인해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캐나다는 문화서비스 부문에서 개방적이기 때문에 향후 진출이 기대
- 환경서비스 부문도 전면 개방한 바,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기업 및 전문 기술자 진출이 기대됨.
- FTA의 체결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ISD 조항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캐나다와의 투자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¹⁴⁾

□ 캐나다와의 FTA 발효로 향후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 및 협력 강화도 기대됨

- 캐나다는 석유(6위), 천연가스(4위), 우라늄(3위)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미개발 지역이 많아 향후 개발가능성도 높음.
-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캐나다 자원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ISD 조항이 포함한 FTA 발효로 정치적으로 안정적 캐나다 에너지 시장으로의 진출과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5. 향후 대응 방향

□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와 신규 수출품목의 발굴을 위해 캐나다 수입업자를 상대로 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활용품, 전지전자 등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는 캐나다측 수입업자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마케팅 강화가 필요
- 특정품목에 대한 편중도를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
 - 기발효 FTA의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FTA는 상대국으로의 수출품목 다변화의 계기로 작용해 품목집중도를 완화시키고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기회가 됨.¹⁵⁾¹⁶⁾
 - 재외공관 및 무역관 등을 활용하여 캐나다 바이어를 상대로 한·캐나다 FTA에 대한 설명회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을 고려할 수 있음.

14) 김종덕 외 (2013)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15) 김한성, 장용준 (2010) “한칠레 FTA에 따른 수출증가의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칠레 FTA 체결 이후인 2004~09년 기간의 한국의 대칠레 총 수출액에서 기존수출기업의 수출은 총 수출액의 6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수출기업의 수출 비중은 38.3%에 달함.

16) 김영귀 외 (2014)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 따르면, FTA발효 이후 FTA상대국으로 수출기업 증가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EU는 대기업이 9.4%, 중견기업이 41.9% 였으며 미국은 대기업이 12.8%, 중견기업이 35.6%로 나타남.

- FTA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수입활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 우리의 총수입에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며, 상당부분 對세계 수출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캐나다로부터의 비철금속 등 수입증가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
 - 새로 수입되는 소비재는 다양성에 따른 이익(love of variety)을 가져오며, 수입재의 가격하락과 경쟁촉진은 질과 양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혀 줌.
 - 선행연구에 따르면, FTA로 인한 전체 성장효과의 약 1/6은 수입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¹⁷⁾
 - 따라서 對세계 수출과 국내 소비재 경쟁관계 등을 고려하여 한-캐나다 FTA 수입활용도 제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현재 對캐나다 투자는 주로 에너지 자원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관련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진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⁸⁾
 - 현재 셰일가스를 개발 중인 캐나다는 새로운 LNG 공급국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¹⁹⁾ 가스전 개발 투자(셰일가스 생산 플랜트, 저장 및 수송시설, 산업설비, 발전소 등의 인프라 부문) 규모는 2035년까지 3,860억 캐나다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자원분야 투자와 연관된 플랜트, 중장비, 기계 등 관련 산업이나 시장잠재력이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소기업체와 대기업의 공동진출을 추진해볼만 함.
- 청년층의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타 정책(예, K-Move)와 연계하여 캐나다로의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캐나다 FTA 발효로 독립전문가들이 노동시장의견서(Labor Market Opinion, LMO)²⁰⁾ 없이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계약한 기간 동안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됨.
 -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문화컨텐츠 산업에서 진출이 유망함.

17) 김영귀 외 (2014)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수입으로 인한 효과와 FTA로 인한 전체효과가 각각 0.217%와 1.526%로 전체 효과의 약 1/6은 수입으로 인한 효과임.

18) KOTRA (2014) “한-캐 FTA 협력 유망 4대 산업”

19) 캐나다의 셰일가스 매장량은 약 573조ft³로 세계 5위 수준

20) 노동시장의견서는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선결 요건으로 최근 발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지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는 국내진출업체와 잠재적 진출업체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전문인력 조달이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에서 직접 인력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문화컨텐츠 산업에서는 최근 양국 합작 애니메이션의 흥행으로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기술자들의 캐나다 진출을 기대할만 함.
- 현재 對캐나다 투자는 주로 에너지 자원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관련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로의 진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²¹⁾
- 현재 셰일가스를 개발 중인 캐나다는 새로운 LNG 공급국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²²⁾ 가스전 개발 투자(셰일가스 생산 플랜트, 저장 및 수송시설, 산업설비, 발전소 등의 인프라 부문) 규모는 2035년까지 3,860억 캐나다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한-캐나다 FTA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최종재 수출기업들은 캐나다 시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함.²³⁾
- 생활소비재인 화장품, 이·미용품, 식품 등과 가전제품의 시장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고품질과 한류를 키워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깊고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아시아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한류열풍을 활용한 공략이 효과적임.
 - 또한 영어와 불어의 병기, 소비재 포장 및 라벨링 법, 자연건강제품에 대한 규제법 등 까다로운 인증에 대한 주의도 필요함.
- 중간재 생산 및 수출기업들은 한-캐나다 FTA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음.
- 캐나다는 NAFTA회원국들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 뿐 아니라 글로벌 소싱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
 - 부품소재 기업들에 캐나다로의 진출은 현재의 NAFTA와 가까운 장래의 TPP를 통해 구축될 글로벌 가치사슬에 우선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참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21) KOTRA (2014) “한-캐 FTA 협력 유망 4대 산업”

22) 캐나다의 셰일가스 매장량은 약 573조ft³로 세계 5위 수준

23) 한캐나다 FTA활용 대형유통망 진출전략 세미나, FTA활용 한캐나다 유통협력세미나